

식민지 근대도시형성과 목포 유·이민소설

: 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근원

서정자

초당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 1 식민지 유·이민의 도시 목포
- 2 식민지 근대도시형성과 목포 유·이민소설
 - 2.1 「추석전야」의 목포 유·이민과 삶
 - 2.2 30년대 박화성 소설과 이주민들
 - 2.3 「하수도 공사」와 「이발사」의 일본인들
- 3 나오며-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근원

이 글은 박화성이 여성 작가라는 점에서 그 여성 의식이나 사회주의 사상의 성취를 가늠하는 것만으로는 박화성 문학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기에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여성이자 사회주의 운동가 박화성 이전에 그를 키워낸 목포에서 얻은 자양분이 작가로서 그를 키운 배경이자 작가의 다양한 면모를 꿰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고 보고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과 박화성이 쓴 목포 유·이민소설을 주목해 본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의식으로 요약될 박화성의 문학적 특성은 그의 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사상은 오빠와 남편의 영향, 그리고 일본 유학에서 독서회를 통해 강화된 것으로 보아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상적 영향 이전에 그가 나고 자란 목포의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과정에서 유·이민의 삶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박화성의 사회의식이 형성되었으리라고 보고 그가 쓴 1925년 첫 소설 「추석전야」와 30년대 소설에 사회의식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핀 것이다. 목포는 부산 인천 등지의 개항과 달리 일제의 강압으로 개항한 경우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칙령으로 개항을 하였기에 일제식민지 지배가 본격화하기 전, 한동안 전통적인 양반지배체제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따라서 신분제가 딱혀들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존속될 수가 있었다. 목포는 토착 거류민이 희소한 가운데 개항으로 도래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이들이 전국에서 목포로 몰려들었고 일본 이민자들도 몰려와 이들 유·이민이 시민으로 된 특이한 도시이다. 다른 개항장과 달리 일인 이민자들과 섞여 사는 분위기에서 박화성은 근대 초여타의 작가들과 달리 식민지 근대 도시의 삶을 가까이서 체험하였고 이 ‘신세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성장기를 보냈기에 첫 소설 「추석전야」에서부터 식민지시기 뚜렷한 사회의식으로 목포 유·이민의 삶을 그렸다. 그의 환경은 그의 개성과 함께 사회의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그의 전 문학 기간 사회의식이 그의 문학에서 뼈대를 이루게 된다.

국문핵심어: 개항장 목포, 목포 유·이민소설, 「추석전야」, 박화성, 식민지 근대도시, 사회의식

1 식민지 유·이민의 도시 목포

이 글은 박화성(1903-1988)이 여성 작가라는 점에서 그 여성 의식이나 사회주의 사상의 성취를 가늠하는 것만으로는 박화성 문학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기에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여성이자 사회주의 운동가 박화성 이전에 그를 키워낸 목포에서 얻은 자양분이 작가로서 그를 키운 배경이자 작가의 다양한 면모를 꿰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고 보고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과 박화성이 쓴 목포 유·이민소설을 주목해 본 것이다. 박화성이 나고 자란 1900년대 초는 목포가 1897년 개항하여 근대도시로 형성되어 간 시기이기도 하며 일제식민지의 지배가 시작된 때기도 하다. 식민지 근대도시로 형성되어간 목포는 부산이나 인천 등지의 개항장과 달리 일제에 의해 강요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었다. 아관파천 이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한 일본은 개항을 조선에 강요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목포의 개항은 대한제국의 정부에서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관 세수입이 목표였음, 관 세수입은 조세수입의 19.8%) 일본 측과 하등의 상의 없이 조약이 아닌 칙령으로 이루어졌다. 목포는 왜적 침입의 요해처(要害處)이므로 세종 21년 목포만호진이 설치된, 군사적으로 중요한 길목이기는 하였으나 개항 당시 총 주민이 수백여 명에 불과한 한촌이었는데 30년대 후반에 이르러 6만여 명의 인구가 급성장되어간 곳이자 그 주민이 거의 모두 일본인이나 조선인 유이민(流移民)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개항 당시의 목포 인구에 대해서는 『목포지(木浦誌)』¹ 『목포부사(木浦府史)』² 『무안보첩(務安報牒)』³ 세 군데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는데 가장 신빙성이 가는 『무안보첩』의 기록을 참고하면 150여 호(600여 명)의 인구가 살았다.⁴ 이러한 인구가 1910년에는 조선인이 7,076명, 일본인이 3,494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⁵ 개항장 목포의 특이한 점의 하나는 전통적인 양

1 『목포지(木浦誌)』, 김정섭 역, 도서출판 향토문화사, 1991.

2 『목포부사(木浦府史)』, 김정섭 역, 목포문화원. 2011.

3 『무안보첩(務安報牒)』, 박찬승·고석규 역, 목포문화원, 2002.

4 이상 고석규, 「근대이전 서남해안지방의 역사와 목포」, 목포백년사 편찬위원회, 『목포개항 백년사』, 사단법인 목포백년회, 1997, 107-109쪽.

5 『목포시사』, 목포시, 1987, 72쪽. 일본인의 경우 1897년 206명의 인구가 매년 1,045명,

반지배체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제가 먹혀들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한 동안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새로 개항하는 목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이들이 목포로 몰려들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상인 농민 향리층 그리고 양반 지주층 등 다양한 이들이 포함되어있었다.⁶ 항구에 들고 나는 배의 하역에 종사하기 위해 개항 전부터 부두 노동자들이 부산에서 몰려와 있었다고 하며⁷ 뒤를 이어 객주와 각종 상인도 몰려들었고, 인근 농어촌에서 조선인들이 가족 단위로 이주해왔다.⁸ 이때 목포로 이주해온 조선인들은 인근 군민(郡民)만이 아니라 서울 원산 등 멀리서도 왔고 경상도 출신이 매우 많아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다. 박화성의 아버지 박운서와 그 가족은 1902년에 영암에서 목포로 이주하였고⁹, 아버지는 선창에서 객주를 운영하여 성공한 경우였다. 개항 무렵 목포에는 70명 정도의 객주가 있었으며 객주를 중심으로 한 시민계층이 형성되어 학교를 세우고 호남학회에 가입하였으며 민의소(民議所)¹⁰를 만들기도 하였다.

목포는 유이민의 도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정부에서 권하여 건너온 일본인도 이민이고¹¹, 조선인 주민 거의 모두가 유·이민들인 데다 다른 개항장

2,851명, 2,863명, 3,079명, 3,494명으로 늘어났다.

- 6 박찬승, 「근대목포의 역사(1897~1945)」, 목포백년사 편찬위원회 편, 『목포개항 백년사』, 사단법인 목포백년회, 1997, 116쪽.
- 7 배종무, 『목포개항사 연구』, 도서출판 느티나무, 1994. 151쪽.
- 8 박화성의 유·이민소설은 모두 국내 이민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첫 소설부터 유·이민의 삶을 쓴 작가는 목포의 거주자가 거의 이주민이었기에 따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듯하다.
- 9 박화성의 생가터는 목포역에서 큰 시장으로 곧게 난 도로의 왼쪽이다. 목포역이 들어선 곳은 바닷가로 어린 시절 박화성이 집에서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거리에 있었다. 객주를 운영한 아버지의 직장이 근처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박화성은 바닷가에 ‘우리 빈터’가 있었다고 썼다. 그 바다는 후일 메꾸어진다.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박화성 문학전집』 14, 푸른 사상사, 2004. 50쪽.
- 10 1909년 4월 『대한 매일 신문』에는 「목포 인사 개명」이라는 제목 아래 “목포항에 있는 한국 인사들이 일제 회동하여 민의소(民議所)를 설립하고 의장 1인 이사4인 위원 10인을 투표 선정하였다더라”고 보도하였다. 이즈음 전국 각지에서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지닌 ‘민회’나 ‘민의소’가 조직되고 있었는데 목포의 민의소도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속 기사가 없어 이후의 사정은 알 수 없다한다. 박찬승, 앞의 책, 153쪽.
- 11 토쿠마 하지메, 「개항기 목포 이주 일본인의 도시건설과 도시 생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과 달리 일본인이 거주하는 조계지와 조선인 거주지를 분명하게 가를 수 없이 잡거(雜居)가 허용된 도시이기도 하였다. 거주지는 나뉘어 건설하였으나 채소 등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조선의 장시를 이용해야 해서 일인들과 조선인이 섞여 사는 형태가 되었다. 조선 유·이민들은 당연히 차별 속에 불편한 조건을 견뎌야 했지만, 한편 ‘기성 사회’라 할만한 분위기가 없는 신도시, ‘새터’에서 일인과 선교사들로부터 외국문화도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적 자유롭고, 나아가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박화성은 한국 근대 초기 작가들과 다르게 식민지 도시의 삶을 체험하였고, 구질서로부터도 자유로운, 위의 인용에서 보듯 식민지 초기 ‘신세계’에서 특이한 성장기를 보낸 작가다. 이렇듯 박화성의 환경은 그의 개성과 함께 근대비판의 사회의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알맞았다.¹²

1980년 『월간조선』에서 박화성은 “나는 대한제국 광무 40년¹³ 4월에 당당한 대한제국의 딸로서, 또한 부모가 다 기독교 신자인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 1910년(융희4년) 음력 2월의 어느 날이었다. 황제 폐하의 탄신 일이라 하여 탄신축하의 밤 잔치가 예배당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 정문에 세워진 술문과 대형 태극기가 한 쌍씩 문마다 X자로 꽃혀 펄럭이는 것이며…”라고 회고하면서 이때 오빠가 웅변을 토하고 선창한 “대한민국 황제 폐하 만세!”를 함께 우렁차게 부르던 감격을 쓰고, 같은 해 8월 29일에 대한제국의 최후의 날인 국치 민욕의 기억 또한 잊을 수 없어 “7세의 어린 내가 대한의 딸로서 2월 축제에서의 극단의 자궁과 8월 국치에서의 극단의 치욕을 한꺼번에 맞본 기구한 원인에서일까, 일편단심의 애국심만은 남에게 뒤지지 않았던지 어려서부터의 삶의 목표는 오직 ‘나

논문, 2010, 7쪽. 일본 정부는 남아도는 농민들을 조선으로 이주하도록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12 최성환, 「1920년대 목포 청년운동과 지역 엘리트의 성격에 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5권 1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33쪽. “목포의 사회구조 상 특징 중 하나는 뿌리 깊은 향촌사회 세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항 이후 새로운 땅을 간척하여 거주공간이 확대되면서 도시가 성장했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상징인 향교나 서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향리(鄕吏)’라 칭할 수 있는 지역의 토호 세력은 미약했다.”

13 박화성(1903.4.16~1988.1.30)의 생년은 1903년으로 곧 광무 39년이었다. 40년이라 쓴 것은 39년의 오기.

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자'로 일관하여"왔다고 했다.¹⁴ 이는 작가 박화성이 어린 날 결심했던 삶의 목표를 평생 일관하여 지켜냈다는 고백임과 동시에 그가 지향해온 문학적 지평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고담이다. 이 글에서는 1910년 이때까지도 태극기를 걸고 황제 폐하의 탄신 축하 행사를 했다는 것, 그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것도 읽을 수 있다.

조지 스타이너는 '환경의 압력'이 작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거듭 강조한다. 환경의 밀도는 너무나 다양한데 이 다양성, "정보공간은 사회적 물질적 범주를 포함해야 하"¹⁵ 며 "문학은 역사적 정치적 힘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¹⁶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근대도시가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에서 성장한 박화성의 삶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박화성이 사상성을 지니도록 영향을 준 사람으로 오빠 박제민과 남편 김국진을 들며, 일본 유학 기간 독서회를 통해서 그 사상성이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식민지 근대도시가 형성되는 동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한 박화성의 환경을 상고해 볼 때 어쩌면 이것이 오빠나 남편의 영향보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일는지도 모른다고 본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다. 당시 목포의 개방적 분위기를 말해주는 또 한 예가 있다. 미국 남 장로교회 선교부는 전남의 나주에 선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1897년 벨 선교사와 해리슨 선교사를 나주에 보냈다. 나주 성안에 임시숙소로 초가 한 채를 사들여 수리하였고 성문 밖에도 넓은 대지를 샀는데 보수성이 강한 양반과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로 팔고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1897년 개항하는 목포로 와서 전남의 선교기지를 목포로 결정하였다. 1898년 가을, 벨 선교사 가족과 오웬 선교사 가족이 목포로 이사해옴으로써 목포교회가 출발했다고 하며 목포에서 이들 선교사를 반대하는 소동은 일절 없었다. 도리어

14 박화성, 「1910년의 궁지와 치욕의 내 생애의 시작은…」, 『월간조선』, 1980.11., 330-336쪽.

15 조지 스타이너, 윤지관 역,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나』, 서커스, 2019, 10쪽.

16 영문학은 사회계급 속에 담겨있고, 그것에 의해 생성되며 프랑스문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종교적 정치적 갈등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아왔다는 그는 유럽문학과 미, 러 문학의 차이를 광활한 환경과 서로 다른 계층구조를 지닌 사회적 특성에서 찾아 보인다. 위의 책, 같은 쪽.

이때 외지에서 이주해온 세례교인들이 있어 합동으로 교회가 출발하였다 한다.¹⁷

2 식민지 근대도시형성과 목포 유·이민소설

2.1 「추석전야」의 목포 유·이민과 삶

김주연은 이광수의 문학적 출발과 비교할 만하다며 우리 근대문학사상 “박화성은 사회성, 현실성을 처음으로 구현한 작가”이며 그런 의미에서 20세기의 문예연 선구 작가라고 말했다. “이광수의 추천을 받은 「추석전야」부터 「홍수 전후」 「하수도 공사」 등등의 대표작들이 모두 사회의식이 강렬한 현실주의 소설들이라는 점에서 현대 한국문학의 출발에 큰 시사점을 던진다.”¹⁸ 라고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한국문학 리얼리즘의 형성과 전개에서 염상섭·현진건·채만식·김유정 등의 문학을 일별하고 일본강점기에 진정한 한국 리얼리즘 문학은 ‘없었다’고 쓴 구중서의 주장은 박화성의 소설을 보았다라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궁금하다.¹⁹ 임현영은 박화성의 사상적 성장이 일본 유학 시절이었음을 보여주는 장편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 계보와 호남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의 계보에 비춰볼 때, “박화성은 카프에 가담한 적이 결코 없으며 문단 적으로는 일종의 무소속에 속한 듯했지만 정작 『북국의 여명』은 카프 맹원들의 작품보다 더 치열한 투지를 그려주었다.”²⁰고 하였다.

『조선문단』 1925년 1월호에 이광수 추천으로 실린 박화성의 단편소설 「추석전야」는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과 조선인 유이민의 현실을 어느 작가보다 가장 이른 시기에 보여주고 있는 문제작이다. 먼저 박화성은 조선인들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근대도시 목포를 묘사한다. 크고 작은 섬으로 둘러싸여 호수처럼

17 목포개항 백년사 편찬위원회 편, 『목포개항 백년사』, 사단법인 목포백년회, 1997, 280쪽.;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글방, 1992, 181-183쪽.

18 김주연, 「근대비판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전개-박화성, 박경리, 박완서문학의 무게를 생각한다」, 『제11회 소영 박화성 문학페스티벌 자료집』, 박화성연구회, 2017.10.21, 21-23쪽.

19 구중서, 『문학적 현실의 전개』, 창비, 2006, 50-54쪽.

20 임현영,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8.15 후의 사회상-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제13회 소영박화성 문학페스티벌 자료집』, 박화성연구회, 2019.10.5, 38쪽.

잔잔한 푸른 바다와 소금강이라 일컬어지는 유달산 등 목포의 풍경을 동서남북 360도 홀로그램으로 묘사하면서 그는 먼저 일본인 거리와 조선인 거리의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빈부의 공간을 비취낸다. 유달산의 돼지 움막 같은 조선인 거주지와 늘비한 일인 기와집의 대조, 북향으로 들어오는 감자 배, 수박 배, 박 배, 나무 배, 고깃배의 돛대가 들어선 해변과²¹ 김칫거리를 씻고 있는 부인…의 풍경은 생존경쟁의 현장이고, 이와 대조되는 밭 가는 농부와 소의 한가로운 풍경소리는 당시 목포에 빠르게 변하는 근대의 시간과 한가로운 전통의 시간이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작가의 묘사는 빠르고 또 느리게 식민지근대화현장의 현장을 그린다. “항구의 특색은 남편 해안에 있다. 푸른 바다에 점잖은 기선과 어여쁜 흰 돛대, 방정스러운 발동선들이 들고나는” 일인이 건설한 부두. 이 부두의 배에 ‘점잖은’ ‘어여쁜’ ‘방정스러운’이라는 형용사를 쓴 데서 조선인의 ‘삶’과 거리를 둔 일제식민지의 지배를 조롱하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주인공 영신이 사는 목포역사 근처 호남정은 신개발지(간척지)로서 아직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일종의 빈민굴의 이미지를 지닌 조선인들의 거주지다. 영신과 방적공장²²에 같이 다니는 옥레어머니도 이곳 호남정에 산다. 이 소설에는 몇 개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이 가족들은 유이민일 가능성이 높다. 목포의 경우에는 앞에 쓴 바와 같이 시민(당시엔 부민府民) 거의 모두가 유·이민이었기에 등장인물이 유·이민이다, 아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고 본다. 이들을 통해 목포 유이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능성의 땅 식민지 근대도시에 삶을 붙이고 있었는지 살펴

21 “돌아온 어선에서 우물거리며 소리치는 사람의 소리와 선두(船頭)가로 쌓아놓은 수박, 생선, 건어물에서 개미 떼같이 덩비며 눈이 벌게서 날뛰는 사람 틈을 걸어들 때는 가슴이 빠근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박화성, 『추석전야』, 서정자·김은하·남은혜 편, 『나는 여류작가다』, 푸른사상, 2021, 16쪽.

22 소설에 나오는 방적 공장을 목포에 있는 공장의 하나로 보아왔으나 사실이 아니다. 목포 해안통은 공장지구로 지정되어 공장을 건설하여 크게 호황을 이루었다고 하지만(『목포부사』, 171쪽) 조포(粗布)공장은 있었으나 방적 공장은 없었다. “1924년 해안통에 조선 면화회사 경영의 직포 공장이 설립되어 원료 면사는 오사카에서 수입하였는데…” 라고 해서 당시 방적 공장이 목포에 없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목포부사』, 525쪽) 소설에 “머릿골이 터질 듯한 기름 냄새”, 라고 쓴 부분이 있으나 공장 묘사에서 기름 가마는 나오지 않았다. 작가도 이 공장이 실재한 공장이 아니라는 언질을 보인 적이 있다.

본다. 박화성만이 그럴 수 있는 1920년대 목포의 현장이다.

주인공 영신은 현재 나이가 29세, 소설이 쓰인 1924년 기준(발표는 1925.1)으로 영신은 1895년, 개항 전에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목포가 개항한다는 소문과 개항하면 벌어 먹고살기가 농촌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인근 어느 지역에서 딸을 데리고 목포로 흘러온 유이민일 것이다. 왜냐하면, 영신과 그 부모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집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토착 인이었다면 적어도 초가일망정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서울 영감에게서 월세로 얻은 땅에 지은 집에 살다가 홀로된 딸에게 집을 주고 부모들은 신작로 오막살이에서 죽 장사를 하고 있다.²³ 말하자면 땅을 월세로 빌려 집을 지어 산, 유이민으로 뿌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도시에 나왔기에 딸 영신을 목포의 XXX여학교에 보내 졸업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영신은 17세에 결혼하여 딸 경아가 12세, 아들 영이는 유치원생이다. 남편은 보통학교 졸업하여 일본인 집에서 근무해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움이 없었으나 3년 전에 폐결핵으로 죽었다. 홀로된 영신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방으로 돌아다니며 바느질 품을 팔아 남편의 학비를 대며 네 식구 목을 축이는 중, 금년 사월부터 새로 생긴 방적 공장에 들어가 일급 사오십 전으로 목숨만 이어가는 중이다. 시어머니와 영신의 남편도 뿌리 없는 삶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영신의 남편은 보통 학교를 졸업해 일본어를 잘하므로 일본인 집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죽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바느질 품에 얹혀사는 외에 아무 삶의 방도가 없다.

영신에겐 월사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온 딸 경아가 있고 서울 영감이 늘 독촉하는 석 달 밀린 땅세가 있다. 내일모레 다가오는 추석에 딸의 댕기와 아들의 허리끈을 사주어야 할 것을 생각한다. 영신은 경아의 월사금 이원과 댕기 허리끈 합해 삼 원, 땅세 삼 개월 치 사원 오십 전, 좁쌀과 안남미 싸라기²⁴ 값과 백

23 이때는 남교동 공설시장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라 길가 오막집에서 장사를 하는 듯하다.

24 안남미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베트남의 쌀 안남미도 목포항을 통해서 들어 온 수입품이리라. 조선 쌀은 일본으로 실려 나가고 조선인은 값싼 안남미를 먹고 있다. 빈민들은 그나마 싸라기다. 조선인은 밥을 해 놓으면 풀풀 날리고 냄새나는 안남미에 적응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식량을 사서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 배후에 농사할 땅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식량을 돈으로 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미 한 되 값으로 일원, 합계 십일 원이 필요할 것을 꼽아본다. 내일 받는 십일급(十日給)이 오 원이니 육 원이 모자란다.²⁵

일인 감독이²⁶ 예쁜 여직공 양금이에게 성희롱을 하자 이를 막아주다가 팔을 다친 영신은 병원에 가는 대신 간호부(사) 순임이에게 갔었다. 순임의 가족도 유이민일 것이다. 간호부 순임이는 간호부 자격증을 가졌으나 선교사들이 연 목포 의료원이나 일반 병원에라도 취직했는지 알 수 없다. 병원에 취직했다라도 집에서 약을 발라주는 정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일제가 세운 목포 부립 병원에는 조선인 간호부가 없었다. 일어를 못 하는 조선인은 그래서 그 병원엘 가지 못한다. 순임이 어머니는 바느질 품을 판다. 명절이 다가와서 바느질감이 너무 많다고 하던 것을 생각하고 영신은 바느질감을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다시 집을 나선다.

밤 저자에는 쌓인 실과가 불빛에 반짝인다. 부인들이 전방을 지키며 바느질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²⁷ 목포 유이민들의 삶을 살펴오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모두 여자다.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전방을 지키는 여자는 일인삼역이다. 살림도 하고 과일가게도 보고 바느질도 한다. 작가 박화성은 이 시기에 벌써 여성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깨닫고 있다. 영신은 샅바느질 감을 맡아 와 다친 팔을 잡고 눈살을 찌푸려가며 밤을 새워 저고리 세 개를 마쳐 일원 십전을 벌였

25 바느질삿도 일원 십전, 일원 이십전 두 가지로 나오지만 영신의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십전 단위는 대강 해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6 작가는 수필 「처녀작을 쓰던 무렵」에서 「추석전야」를 쓸 당시 새로 생긴 목포의 방직공장에 일인 감독이 있었는데 그 일인 감독이 인텔리여서 소설 속에 있는 악덕 감독이 자기인 양 독자들에게서 오해를 받기가 십상이지만 어디까지나 소설은 허구적인 사실을 작품화한다는 원칙 아래 나의 의도를 이해해 드리노라는 간곡한 편지까지 보내기도 하였던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 행간을 잘 읽어보면 「추석전야」에 악덕 일인 감독을 등장시키고 작가가 항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미리 작가가 인텔리 일인 감독에게 양해의 글을 보내 일인 감독이 답장을 보내온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된다. 식민지 지배 당시 작가가 일제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하는 에피소드다. 박화성, 「추억의 파문」, 『박화성 문학전집』 19, 2004, 푸른사상사, 310쪽.

27 서정자·김은하·남은혜 편, 앞의 책, 32쪽.

다.²⁸ 영신은 땅세 받으러 온 영감에게 두 달 치만 받으라 하나 서울 영감은 에누리 없이 사원 오십 전을 받아 간다. 영신은 땅을 치고 몸부림한다. 별안간 기침이 시작되었다. 막차가 처량한 소리를 지르고 달려온다. 기침은 영신도 그 남편처럼 폐결핵에 걸렸으리라는 암시다.²⁹ ‘막차’ 들어오는 대목은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식민지 근대도시 빈민의 비극적 삶의 은유다.

땅세 받으러 온 서울 영감도 심상치 않다. 이 영감도 목포부에서 땅을 불하한다는 공고를 보았거나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온 유·이민일 수 있다. 『목포부사』³⁰에는 간석지의 경락이 유찰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큰 이익을 보았다는 에피소드가 적혀있다. 서울 말씨를 쓰는 영감은 빈민들에게서 땅세를 뜯어가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자다.

「추석전야」는 일제에의 저항정신이나 빈부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뚜렷하다.³¹ 목포에서 태어났으니 식민지의 공기를 숨 쉬었고, 빈부격차와 민족적 차별을 밤낮으로 보고 자라 고향 사람들의 삶을 훤히 알았기에 박화성의 목포사람 이야기는 첫 작품이지만 사실적이고 탄탄하게 쓰일 수 있었다.³² 유·이민의 뿌리 없는 삶과 궁핍, 여직공의 열악한 급료와 성희롱, 밤새워 샅바느질하는 여성들, 질병, 사회적 물질적 현실의 완강한 압력은 그에게 뚜렷한 현실 의식과 사회 의식을 갖게 했다.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 초기라는 자유로운 공간은 성(젠더)에 구애받지 않는 당당한 여자 박화성이 태어나게 했고, 서울 숙명여학교 졸업의 개명한 시각과 교원으로 근무한 일 년은 작가 박화성으로 하여금 식민지 현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한 것이다.

28 저고리 샅이 1월 10전, 1월 20전 두 가지로 나온다.

29 시어머니도 기침을 하고 있다.

30 『목포부사』, 앞의 책, 859쪽.

31 서정자·김은하·남은혜 편, 앞의 책, 19쪽. “영신은 전일부터 빈부와 계급에 대한 반항심을 잔뜩 가지고 있었으며 더구나 감독의 평일 행위를 몹시 미워하던 터라…”.

32 변정화, 「1930년대 한국단편소설연구-결핍상황의 양면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62-75쪽. 3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살핀 유이민의 소설은 거의 타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국내 유이민소설은 드물다. 이태준의 「꽃나무는 심어놓고」 정도를 예로 들고 있다.

2.2 30년대 박화성 소설과 이주민들

1930년대 중반 목포는 전국 5대 도시에 들 만큼 성장했지만, 그 안에는 1만 명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식민지 지배 세력과 부유계층으로 군림하고, 6만여 명의 조선인들이 노동자, 피지배 계층으로 궁핍한 삶을 부지해가는 현실이 있었다. 또 목포 안에는 조선인 지주와 자본가로 볼 수 있는 이들이 차츰 늘어났으나 목포 주변의 농촌과 어촌에서는 농업 이민을 떠나는 이들이 크게 늘었던 것도 이 시기이다.³³

「추석전야」 발표 후, 박화성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일본여자대학 영문과로 진학하였고, 그곳에서 장편『백화』를 쓰기 시작한다. 다섯 번 고쳐 쓴『백화』를 연재하기 전, 중편「하수도 공사」(1932.5)를 발표하였고 6월부터 11월까지『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이『백화』(1932.6~11)다. 이후 30년대 소설들에서「추석전야」에서 보여준 사회의식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유·이민의 직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추석전야」도 그렇지만 박화성의 30년대 소설에는 주로 노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하수도 공사」에서 주인공 동권과 그 아버지는 노동자다. 집안 형편이 차차 나빠져 상업학교 학생 동권이 중퇴를 생각할 때, 학교에서 의외의 사건(동맹휴학인 듯)이 일어나 상급생과 동무들이 모조리 잡혀들어가고 동권은 친한 상급생의 원조로 동경으로 가게 된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아직 진학할 학교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역시 상업학교 선배이자 수재로 소문난 ‘정’을 만나 사회과학을 공부하며 지도를 받는다. 2년여 후 그들과 함께 목포로 돌아오나, 그새 동권의 집은 없어지고 방 한 칸에서 온 가족이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어있다. 목수인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가족의 호구지책을 삼고 있어 동권은 생계를 도울 겸 하수도 공사 노동자로 들어간다. 이때 목포의 경제는 침체 되어 금융의 경색으로 사업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었다. 동권의 아버지처럼 이전에는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 날품팔이로 전락한 경우로 「춘소」의 영복 아버지를 들 수 있고 「눈오던 그밤」의 순석 아버지도 농촌에서 살건만 배가 고프니 지게벌이를 하다 짐을

33 박찬승, 「근대목포의 역사(1897~1945)」, 앞의 책, 118쪽.; 김경옥, 「1920년대 신문을 통해 본 목포사람들의 도시생활」, 『역사학연구』 제50호, 호남사학회, 169쪽.

진 채 쓰러지기도 한다. 20년대 말과 30년대에 들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유·이민들이 날뎠팔이로 떠돌고 있다.³⁴ 반면 목포에는 대일 쌀 수출 등으로 부호가 된 대지주가 출현하고 정미업, 면화회사, 직포공장 등 사업가들이 부르주아계층으로 발돋움했다. 이들 역시 암태도 등 섬 또는 인근 농촌의 이민자들이다. 그들 자체의 일본 유학이 줄을 이어 어느 지역보다 유학생을 많이 배출한 곳으로 목포가 꼽혔다. 부르주아계층이 등장하는 한편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늘어나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작가 박화성으로 계급 사상에 쉽게 눈을 뜨게 하였을 것이다. 동권을 사랑하는 용희네는 동권네와 같이 죽동에서 각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살았으나 포목상을 하여 돈을 번 용희네는 죽교리에 새집을 지어 들고 동권이네는 집이 없어져 용희네 이웃의 방 한 칸을 얻어 네 식구가 살아야 하는 극빈 상황이 되었다. 노동자로 일자리를 찾아 목포로 왔으나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먹는 중간 하청업자의 비리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 소설 「하수도 공사」인데 동권은 일 년이 넘도록 일했으나 ‘빈주먹을 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지들-노동자-에게 선물처럼 비전을 전해준다. 소설에서 암시한 계급 사상이다. 이 비전은 같은 시기에 발표하는 소설 『백화』 연재 예고의 ‘작가의 말’에도 반영되어 있다. “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흑막을 공구하여 문예적 방법에 의하는 전제로 자본주의 사상의 전신인 우리 사회의 봉건적 폭력 만능인 시대 상면을 심히 미약하나마 대중 앞에 제공하고자 한다.” 고려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봉건적 폭력 만능의 시대는 여전하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당시 사회의 금기어일 자본주의 사회비판을 신문연재 소설의 ‘작자의 말’로 쓴 작가는 식민지 지배나 빈부격차의 문제, 남성중심주의의 폭력과 타락한 종교, 이 모두가 봉건시대 폭력과 다름없으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구조로 이어지고 있으니 그 흑막을 벗겨 극복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추석전야」에서 그린 빈민들의 삶을 극복할 대안으로 일본 유학 중 습득한 후쿠모도이즘이나 독서회를 통해 공부한 이론을 제시하는 글쓰기는 식민지 지식인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박화성은 생각하고 있었다.

34 동권의 아버지가 섬으로 일하러 갔다는 대목에서, 목포의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동권이네의 집안 형편이 나빠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떠나려가는 유서」(1932.10)는 노동자의 삶을 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설이다. 은순의 오빠는 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월급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작은 전방(구멍가게)을 내어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은순의 아버지는 난봉꾼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아버지는 없는 것보다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고무공장의 여직공이 되어 은순의 남동생의 학비를 댔다. 집안의 기둥이던 오빠는 스물네 살에 폐병으로 죽고 만다. 가난은 이처럼 늘 질병을 동반한다. 어머니가 버는 하루 이삼십 전의 샅으로 다섯 식구가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공장이 휴업할 때에는 이 집의 식구는 며칠이라도 굶을 수밖에 없었으나 병든 오빠는 유서에서 은순에게 여공이 되라고 명한다. “누이야! 너는 허위와 가장이 많은 현재 학교의 교육만을 받으려 애쓰지 말고 공장 내에서 친히 당하는 실제의 교훈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아라. 너는 여공이 되어라. 그리하여 두 아우를 무쇠같이 키워다구. 이것이 나의 부탁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현재 교육은 허위와 가장이 많다고 비판하면서 여공으로 취직하여 실제의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은 것이라 강변한다. 작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 문제극복의 방안을 노동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단편집1, 『전집』 16, 96쪽).

「비탈」(1933.8)에서는 허위와 가장이 많은 교육으로 식민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여자전문 학생 수옥과 일본 유학생이면서도 식민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깨달아 노동자와 농민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주희를 대비하면서 수옥이 왜 비탈로 떨어져 가야 했는지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는 실제로 목포에 있는 고무공장의 동맹파업 이야기가 나온다. 주희는 정찬의 지도를 받으며 고무공장 여공들이 임금을 깎으려는 경영자(주희의 아버지)에 항의하여 동맹파업 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때 남공들이 동정 파업했다는 대목을 보면 남공들의 임금은 깎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함께 남녀차별로 나타나는 가부장 제도의 불합리함도 일깨운다. 수옥을 사랑하는 김부자 아들 철주는 가족의 눈이나 부인의 존재를 무시하고 수옥의 사진을 방에 걸어 두는 등 수옥을 사랑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정찬을 사랑하면서도 수옥은 임종하면서 철주를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다. 수옥의 서사는 특히 철주와 정찬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심리가 충분한 설득을 얻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를 계몽의 실패사례이며 박화성의 작가 의식에 문제가 있는 쪽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와 비슷한 예

가 「중국날」인데 해방 후 68년에 발표한 단편 「현대적」과 함께 ‘계몽의 실패’라
기 보다 수옥과 같은 여학생이, 금레나 국범이 용순이같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로
고 보고 그를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여 이들 작품을 묶어 다시 볼 필요
가 있다고 결론을 유보해본다.³⁵ 이 소설에서 유이민이 노동자로 일하며 지도자
주희의 도움으로 파업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배면에 깔았다.

「두 승객과 가방」(1933.11)의 가방 사연은 주인공 정채와 그 남편이 지하운
동을 하는 운동가였음을 알려준다. 목포는 20년대에 들어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청년들의 활동이 사회 지도층의 활동을 단연 능가하여 당시의 목포를
역사학자들은 청년의 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한다.³⁶ 목포청년회를 필두로 하여 기
독청년회, 천도교청년회 목포수양회 목포여자수양회 등이 결성되었고 노동운동
신간회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목포 청년회관건립에
도 나서 1926년 완공하기도 했다.³⁷ 1920년 초반부터 광주, 영광에서 교원생활
을 한 작가는 청년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오빠 박제민이 적극적으로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을 했고 목포제유공 파업에 개입하여 옥살이까지 하게 됨으
로써³⁸ 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두승객과 가방」의 주인공
정채는 젓먹이를 할머니에 맡겨두고 대구의 공장에 취직하러 간다. 남편은 형무
소에서 옥살이 중이라 남편의 직업을 알 수 없으나 남편인지 정채인지가 XX공장
의 직공으로 있다가 이번 여름에 쫓겨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직업이 직공, 노동자
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하운동이 원인이 되어 남편은 형무소에 들어가
게 됐고 정채는 직공으로 취직하러 대구에 가는 길이다.

「고향 없는 사람들」(1936.1)이나 「호박」(1937.9), 장편 『북국의 여명』

35 작가의 생전에 연구자가 작가를 만났을 때 증편의 길이인 이 소설은 장편형식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작가가 수궁하는 모습을 보이시던 기억이 있다.

36 1920년대에 청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목포의 경우
박화성처럼 신도시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자라서 청년이 된 나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

37 임현영, 앞의 글, 39쪽. 호남지역의 사회주의 단체가 일반화된 시점은 1924~5년으로 보는
데 조선노동총동맹 창립(1924)때는 전국 170개 단체 중 전남지역 참가 단체가 143개로 압
도적인 우위였다.

38 박찬승, 「192·30년대 목포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앞의 책, 208-231쪽.

(1935.4~12)에는 본격 이민이라 할 고무산, 강서농장으로 간 농민들의 참상과 만주 도문으로 가는 운동가들이 나오나 이들은 목포 유·이민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한귀」(1935.11), 「시드른 월계화」(1936.8) 등에 나오는 선교사는 목포 유·이민의 범주에 들 수 있을 것이나 선교가 목적이기에 성격이 다르다. 「한귀」의 목사는 서양인이며 「시드른 월계화」의 미스베인 역시 미국 선교사로 봉사한 지 30년이 되었고 예배당이 있는 마을마다 다니며 예배 인도를 하는데 고단한 농민들은 즐고 앉아있으나 많은 교인들을 교회로 인도한 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서양인 목사는 「한귀」의 경우처럼 극심한 가뭄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죄를 회개하라고 해 농민들에게 물매를 맞을 지경이 되고, 기우제를 지내는 농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등 신앙 갈등을 일으키거나 목회자와 신도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1913년 목포 행정(사쿠라마치)에 유곽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유흥시설은 호황을 누린다. 「중갓날」의 금례가 목포 술집으로 팔려 가는 것은 이런 시대적 부작용의 서글픈 장면이다. 아버지가 목포 면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비로 쓴 빚 100원을 갚지 못해 팔려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례의 애인 국범이 금례 몸값으로 쓰려고 구한 돈 100원이 금례를 약속보다 일찍 데려가(국범이가 돈 마련해 금례를 목포에 가지 못하게 할까 봐) 금례의 몸값으로 쓰이지 못하게 되자 (사회주의 운동에 쓰게 되어) 도리어 다행이라 생각하는 장면과 금례 또한 술집에 팔려 가면서도 목포로 팔려간 용순이 부자의 첩이 되어 머리에는 금불이로 두건을 하고 비단옷에 손이 분결 같이 고와진 것을 보고 이상한 호기심에 끌리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국범이도 금례도 식민지 현실이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³⁹은 개연성이 있지만 앞에서 쓴 것처럼 이들 소설을 상급 학교를 나온 지식인이면서도 식민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대다수 인물이나 계층을 그리고 있다는 측면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1928년 전국 최고 규모라는 목포공설시장이 들어서면서 「춘소」의 영복이와

39 백문임, 「박화성의 경향소설에 나타난 계급과 성의 문제」, 한국문학연구회 편, 『현역중진작가연구Ⅲ』, 국학자료원, 1998, 324쪽.

함께 사회운동을 하는 최씨는 ‘사이상’이 되어 시금치와 채소를 파는 장사꾼이 된다. 양립어머니가 채소를 받으러 오자 사이상 어머니는 외상값 안 갚았다고 안주려는 것을 사이상이 옥살이 중인 영복이를 보아 채소를 그것도 많이 주는 장면은 당시의 열띤 청년운동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사이상이나 영복이네는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장사꾼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어있는 유·이민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작가는 「비탈」에서 하나의 삽화로 태풍과 가뭄의 이야기를 넣고 있다.

“가엾게 쓰러졌다가도 부스스 일어나고야 마는 벼들에게는 극한 형벌 중에서라도 기어코 살아나 결실을 해야만 되겠다는 굳은 헌신적 정신이 있는 듯이 보였다.” (『전집』 16-126쪽)

들에서 자라는 벼에게서도 극한 형벌 중에서라도 기어코 살아나 결실을 해야만 되겠다는 굳은 헌신적 정신을 읽는 작가는 자신의 사회의식과 그 당위성을 자연에 의탁하여 확인 다짐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때 작가는 자신의 사회의식과 활동에 일말의 회의를 느꼈던 것은 아닌가 한다.

2.3 「하수도 공사」와 「이발사」의 일본인들

박화성의 소설에 등장하는 일인 이주자들을 살펴본다. 목포에 일인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한 일본 정부였기에⁴⁰ 일본인 이주민이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으나 소설에 일인 이주민의 등장은 드물다. 더구나 조선인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추석전야」의 일인 감독을 제외하면 「하수도 공사」와 「이발사」 뿐이다. 개항으로 목포에는 각국 거류지가 조성된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은 목포를 러일전쟁의 배후기지로 이용하고자 전관거류지와도 같

40 토쿠마 하지메, 앞의 글, 18쪽.; 최성환, 「목포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제39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181쪽.

은 특별거류지로 만든다.⁴¹ 각국 거류지로부터 땅을 구매하여 일본은 목포를 일본 전관거류지처럼 만들었다. 앞서 「추석전야」에 일인 공장감독을 등장시키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허구라는 것을 실제 방직공장 감독과 편지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작가의 기록을 앞의 각주에서 언급하였는데 1925년의 이러한 작가의 치밀하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는 일본 유학을 다녀와 『백화』를 『동아일보』에 연재하도록 승낙받은 상황에서 쓴 중편소설 「하수도 공사」에서는 달라진다. 이 소설에서는 수많은 일본인이 등장한다. 하수도 공사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삼백여 명이나 목포경찰서로 몰려가 동맹파업 행동을 할 때 경찰서장으로부터 보안계 주임이며 토목과 주임, 형사 등 일인 관리들이 등장하여 노동자대표와 만난다. 그 외 청부업자, 청부업자 대리, 전주(錢主), 전주의 서기 등의 수많은 일본인이 등장한다. 이 일인들과 만나는 주인공 동권의 태도는 「추석전야」의 영신과 비교할 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한편 단편 「이발사」(1935.2)에서 작가는 일인 주재소장의 갑질 행태를 그리기 위해 청년회 회원이자 간부였던 주인공 이발사 진수를 등장시킨다.

「하수도 공사」의 경찰서 서장이나 보안계 주임, 북천이라는 토목과 주임, 그리고 형사는 일제의 관리로 파견되었을 것이나 그 외 청부업자 중정(中正)이나 중정 대리, 전주 산본(山本), 산본의 서기 등촌(藤村)이는 일본의 이주자 또는 이민일 것이다.⁴² 신문 보도를 참고하면 이들 실제의 청부업자는 광주에 업체를 가진 자로 되어있다. 목포 유·이민은 아니나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 이민일 것으로 판단된다. 소설은 청부업자가 사업비 중 노동자 임금을 착복하는 농간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당시의 토목사업의 실체가 폭로되는 점이 흥미로운 소설이다. 이 「하수도 공사」는 일인 관리가 조선인 노동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일인에게는 경어를, 조선인에게는 하대하는 ‘말씨’를 쓰고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를 포착하는 인물은 주인공 동권이다. 동권은 상업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동

41 최성환, 앞의 글, 182쪽.

42 목포부에서 실시한 대 하수도공사는 실제 청부업자에게 맡겨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데다 2개월 동안 임금 지불을 하지 않아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1931.4.3 『동아일보』, 1931.4.7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소설 속 인물들의 이름은 작가가 달리 지은 것으로 실제와 같지 않다.

경에 가서 ‘정’을 만나 사상적 지도를 받은 의식 있는 젊은이다. 당연히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가계를 돕기 위하여 하수도공사 노동자로 취업해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에 함께 한 그는 대표로 경찰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장이 일인에게는 경어를 쓰면서 조선인에게는 하대하는 말을 쓰는 것을 유일하게 알아들었다. 동권은 분개하지만, 항의는 하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닷새 안에 임금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결국 보름이나 걸려서 그것도 나누어서 임금을 받는다. 임금을 받으려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종일 굶고 추위에 떠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처참하다.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현상이 치밀하게 그려진다. 식민지 목포의 현실을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중심으로 그린 작가는 그러나 이 「하수도 공사」에서 부윤까지 불러내는 대담함을 보인다.

삼월 이십오일-이날은 북천 주임이 삼백 명 노동자의 전부 임금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하던 닷새 되는 날이다. 오전에 과연 영정조(組) 사무실에 북천주임에게서

“정거장 앞 X상점으로 가서 받으라.”

는 엽서 한 장이 왔다. 그들은 일제히 X상점으로 달려가 엽서의 내용을 말하였다. 의외로 많은 방문객을 맞은 상점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당황하다가 그 내용을 듣고는 눈들이 둥그레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삼백 명은 극도로 흥분하여 중정대리를 끌고 부청으로 몰려갔다.

“거짓말쟁이 북천을 내놓아라.”

“민중을 속이는 관청을 없애 하야라.”

“부윤을 끌어내어라.” (『단편집』 1. 『전집』 16, 68쪽)

부윤은 시장이다. 여성 작가는 부윤을 끌어내라고 썼다. 아마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소설에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작가는 이 「하수도 공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했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소설은 리얼리티가 살아있다. 「추석전야」를 쓸 때 일인 공장감독의 이해를 받았던 작가는 일인 부윤에게는 물론 이해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이 격문 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의 아내 김선생도 붙잡혀간다. 이를 두고 ‘정’의 장모는 “아침에 일본 것 하나하고 조선 것 하나가 들어와서 막 집안을 뒤지더니 딸을 데려갈 터이니 가서 아기를 보라고 하기에(생략)” 라고 말한다. 형사가 일본 것, 조선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이 든 일반여인이 형사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발사」의 진수는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으나 가세가 빈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읍내 이발소에 취직하여 집안 생계에 보탬을 주며 기술도 배우고 자습과 독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목포나 광주로 가면 이곳 월급보다 더 벌 수 있으나 고향을 떠나지 못하여 머물고 있다. 진수는 잠재적 유이민이라 하겠다. 결혼도 하고 아들과 딸을 낳아 가족을 이뤘지만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입(식구)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틈만 나면 책을 읽는 노력으로 진수는 청년회의 회원이 되고 간부의 반열에도 올랐다. 친구 상근이가 운영하는 이 이발소는 나주 읍내와 광주, 남평과 영산포로 가는 세 갈래 신작로가 있는 삼거리에 있어 학교와 면사무소와 주재소와 큰 농장들을 끼고 있어서 촌 이발소로 해서는 상당히 번창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보이는 것이 ‘큰 농장들’이라는 말이다. 일본 정부는 농업 이민을 가장 권했으나 농업 이민이 인기가 없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여 곳곳에 일인의 농장이 들어선다. 따라서 주재소의 소장은 당연히 일인이 와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날 허부자와 주재소장이 거의 같은 시각에 이발소에 와 진수는 상근이가 늘 맡아 깎던 주재소장의 이발을 하게 된다. 상근이보다 이발 기술이 좋고 머리 모양도 ‘미술적’으로 잘 깎는 진수였으나 이날 주재소장은 진수가 깎은 머리가 낫설었는지 크게 화를 낸다. 허부자와 주재소장에게 상근이는 평소 굽실굽실하여 비위를 잘 맞추는 반면 진수에게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진수는 고향을 떠나지 못해 상근이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만을 참고 견뎌왔으나 주재소장의 지나친 비난에 참지 못하고 말대답한 죄로 목살 잡혀 주재소로 끌려간다. 가난 때문에 허주사로부터 장리벼를 내먹은 죄로 무료노동을 하는 농군들이 그려진 한편으로 힘없는 이발공을 무시하는 일인 순사부장(주재소장)의 횡포를 그린 「이발사」는 일인이 등장하는 매우 드문 소재의 소설로 잠깐 배경으로 언급되는 일인들의 ‘농장’의 존재와 함께 소중한 작품이다.

3 나오며-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근원

리타 펠스키는 인간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 믿음과 태도의 유행과 퇴조에 의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 현실의 완강한 압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다. 또한 “자아는 시공간에 닳을 내린 구체화된 관점이며 무수한 영향력들이 통과하면서 고유한 자질의 조합으로 형성되고 수렴되는 매듭이다”⁴³ 라고 했다.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기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파리코문과도 같이 잠시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공간에 박화성이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제라도 밝혀져 실로 다행이다. 논증할 자료를 찾다가 박찬승 교수와 최성환 교수의 논문을 발견해 힘이 났다. 검색하니 역사학 쪽에서 꽤 많은 자료가 나왔다. 『목포 개항 백년사』가 나온 뒤로 목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박화성이 김국진과 결혼하자 동네 이웃이 “총독에게나 시집 갈 줄 알았더니” 했다는 것처럼 박화성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으며 삶의 목표가 뚜렷했다. 오직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자’로 일관하여왔다. 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은 바로 개항장에서 형성된 중간계층이나 지배계층이 형성되기 전, 자유로운 목포의 분위기에서 성장한 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였다.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을 따라가다가 식민지 근대도시 목포로 모여든 유·이민, 목포의 특이한 로컬리티를 발견한 것은 놀라움이었다. 개항과 함께 이처럼 유이민으로 시민의 대다수를 이룬 경우는 없다. 목포 유이민소설이라 명명하고 작품을 일별해 보았다.

첫 작품 「추석전야」에서부터 전일부터 빈부와 계급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방적공장의 여직공을 주인공으로 남편이 없이 가난과 싸우는 유이민의 삶을 보여준다. 일제식민지에 대한 비판과 그 극복을 배면에 깬 사회의식의 작품을 썼다. 작가는 「추석전야」에서 공장감독을 ‘일인’이라고 적시하지 않는 등 항일 저항의 글쓰기를 하면서도 검열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그러나 「하수도 공사」 즉 두 번째 작품부터 일인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주임과 심지어 부윤까지도 불러내는 대담함을 보인다. 사상이 강화함에 따라 식민지근대 비판의식이 더욱 뚜렷해진다. 일인 주재소장의 갑질 행태를 그린 「이발사」의 소설적 가치를 새로 발견한

43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101쪽.

것도 소득이다. 배경으로 잠깐 언급된 일인들의 농장이 등장하는 소설이기도 하다. 일인들은 목포인근에 농장을 많이 세웠으나 이들 농장이 등장하는 작품은 보지 못했다. 작가는 2,30년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가족이 유·이민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목포개항사는 목포의 시민이 거의 유 이민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언하고 있으며 일인들의 이민 역시 1만여 명에 육박했다.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유이민의 삶을 보고 성장한 탓이었을까, 작가 박화성은 일어로 글을 쓰지 않았고 친일을 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박화성, 서정자 편, 『박화성 문학전집』, 푸른사상사, 2004, 14권, 16권, 19권.
——, 서정자·김은하·남은혜 편, 『나는 여류작가다』, 푸른사상사, 2021.
박찬승 편, 『목포근현대신문자료집성 개정 증보 2판(1896~1949)』, 목포문화원, 2015.
『목포지(木浦誌)』, 김정섭 역, 도서출판 향토문화사, 1991.
『목포부사(木浦府史)』, 김정섭 역, 목포문화원, 2011.
『무안보첩(務安報牒)』, 박찬승·고석규 역, 목포문화원, 2002.
『목포시사』, 목포시, 1987.
목포백년사 편찬위원회, 『목포개항 백년사』, 1997

단행본

- 구중서, 『문학적 현실의 전개』, 창비, 2006, 50-54쪽.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글방, 1992, 181-183쪽.
김주연, 『그리운 문학 그리운 이름』, 문학과 지성사 2021, 132쪽.
배종무, 『목포개항사 연구』, 도서출판 느티나무, 1994, 19, 32, 151쪽.
서정자, 『한국 근대여성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67쪽.
임규찬 편, 『일본 프로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사, 1987, 7쪽.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101쪽.

조지 스타이너, 윤지관 역,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나』, 서커스, 2019. 10쪽.

논문

김경옥, 「1920년대 신문을 통해 본 목포사람들의 도시생활」, 『역사학연구』 제 50호, 162-201쪽.

김주연, 「근대비판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전개-박화성, 박경리, 박완서문학의 무게를 생각한다」, 『제11회 소영 박화성 문학페스티벌 자료집』, 박화성연구회, 2017.10.21., 21-23쪽.

백문임, 「박화성의 경향소설에 나타난 계급과 성의 문제」, 한국문학연구회 편, 『현역중진작가연구Ⅲ』, 국학자료원, 1998, 309-336쪽.

변정화, 「1930년대 한국단편소설연구-결핍상황의 양면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1-248쪽.

임현영,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8.15후의 사회상-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제13회 소영박화성 문학페스티벌 자료집』, 박화성연구회, 2019.10.5., 35-50쪽.

최성환, 「1920년대 목포 청년운동과 지역엘리트의 성격에 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5권 1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31-64쪽.

_____, 「목포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제39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165-193쪽.

토쿠마 하지메, 「개항기 목포이주 일본인의 도시건설과 도시생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5쪽.

기타

박화성, 「1910년의 금지와 치욕의 내 생애의 시작은…」, 『월간조선』, 1980.11. 330-336쪽.

Abstract

Colonial Modern City Formation and the Immigration Novels of Mokpo
: The Origins of Novelist Park Hwa-seong's Social Consciousness

The writings of Park Hwa-seong have primarily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women's consciousness and socialist ideology. However, such an approach is insufficient for understanding the overall nature of her work. This paper focuses on the city of Mokpo, which raised Park Hwa-seong. Mokpo is not only the city where she grew up, but it is also a keyword that illuminates various artistic aspects of her work. Through an analysis of Park Hwa-seong's Mokpo immigration novel, I attempt to reveal how her characteristics as an author, social consciousness, and sense of identity were formed.

According to existing research, these characteristics were formed from her thoughts. It is believed that this idea was influenced by her brother and husband as well as the reading group she participated in during her studies in Japan. This paper focuses on her hometown of Mokpo, where she lived before encountering these influences. Mokpo, a modern colonial city,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Park Hwa-seong's social consciousness and sense of identity. I examine how her social consciousness and sense of identity are expressed in "Chuseogjeonya" (1925) and novels written in the 1930s.

Busan and Incheon were forced to open their ports by the Japanese Empire; in contrast, Mokpo opened its ports following a decree by the Korean Empire. Thus, a new world could be maintained completely free from the traditional system of domination. Mokpo was a new world and many people flocked to it seeking new opportunities. As Japanese immigrants arrived, Mokpo became a unique city of immigrants.

Park was clearly different from writers from rural areas and other cities because she had many experiences living in a free and open colonial city. She grew up freely in the "New World," and in her first novel, "Chuseogjeonya," she described the life of immigrants in Mokpo based on her social consciousness and sense of identity. Her surrounding environment had a decisive influence on her personality and the formation of her social consciousness and sense of self. Moreover, the social consciousness and sense of self that she formed at this time became an important foundation that informed the entirety of Park Hwa-seong's creative period.

Key words: Open port area Mokpo, Mokpo immigration novel, "Chuseogjeonya", Park Hwa-seong, modern colonial city, social consciousness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